

미쓰리광일팀, 최우수상 수상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지구를 구하라



[리포트]

비건 리더(비건 가족)는 정말 친환경적일까?

[포스터]

알고 입자, 비건 리더



미쓰리광일

고경명, 최수현, 김수호, 김성곤
(국민대학교 3·4학년)

각오 한마디!

안녕하세요.

제4회 청(소)년 체커톤 대회에 참여하게 된 '미쓰리광일'팀입니다.

미디어광고를 전공하는 학생들로서

미디어 속 허위정보를 바로 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팩트체크 리포트

‘비건 리더’(비건가족)는 정말 친환경적일까?



최우리 기자

비건은 동물성 모든 원료를 거부하는 사회운동이지요. 비건 가족을 표방한 제품들이 요즘 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짚어주는 것은 매우 시의성있는 주제인 듯 합니다!

Q 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나요?

한국채식비건협회에 따르면 국내 비건 인구는 2008년 15만 명에서 지난해 250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제 ‘비건’은 식생활뿐만 아니라 패션, 뷰티 등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 패션업계에도 ‘비건 리더’ 열풍이 불고 있다. 그중 몇몇 패션 브랜드는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우레탄, PVC 등의 소재로 제작된 합성피혁을 비건 리더라고 일컬으며 ‘친환경적인 비건 리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다. 과연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비건 리더를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Q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조사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

응답자: 86명, 성별: 남(33명)/여(53명), 연령: 20대(100%)

설문조사

A. 비거니즘에 대한 인식조사

- [리커트 척도] 비거니즘에 대해 어느정도 알고 계십니까?
1(전혀 알지 못한다) ~ 5(매우 잘 알고 있다)
- [리커트 척도] 비건 제품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 [리커트 척도] 비건 제품이 동물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전혀 그렇지 않다) ~ 5(매우 그렇다)
- [선택형] 비건 음식, 비건 화장품 등 비건과 관련된 제품을 소비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① 구매 경험이 있다 ② 구매 경험이 없다
- [서술형] 구매를 하셨다면 어떠한 이유에서 구매하셨습니까?
(*구매 경험이 없다면 ‘없다’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B. 비건 리더에 대한 인식조사

- [선택형] ‘비건 리더(비건 가족)’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른다
- [선택형] ‘비건 리더’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동물성 소재만 사용하지 않은 가족
②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가족 + 식물성 소재를 사용한 가족
③ 식물성 소재만 사용한 가족

3. [선택형] '비건 레더' 제품을 구매했거나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류, 가방 등)

- ① 구매 경험이 있다
- ② 구매 경험이 없다
- ③ 구매 경험은 없으나, 구매할 의향이 있다
- ④ 구매 경험도 없고, 구매할 의향도 없다

4. [서술형] 구매를 하셨다면 어떤 이유에서 구매했습니까?
또는 구매할 의향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면, '없다'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5. [리커트 척도] '비건 레더'는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친환경적이지 않다) ~ 5(매우 친환경적이다)

6. [서술형]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7. [리커트 척도] 일부 비건 레더 상품은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1(전혀 모르고 있었다) ~ 5(매우 잘 알고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1. 비건 레더에 대해 알고 있는 20대는 절반이 넘었다.(55.8%)

2. 비건 레더란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은 가죽 + 식물성 소재를 사용한
가죽이라고 생각한 20대는 절반이 넘었다. -> 비건 레더를 알고 있는 20대
(66.6%), 비건 레더를 알지 못하는 20대 (52.6%)



최우리 기자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인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비건 레더의 구매경험이 있고, 구매경험은 없지만 구매 의향이 있는 20대는
절반이 넘었다.(58%)

4. 비건 레더를 구매한 20대 중 구매 이유로 가격이 합리적(저렴해서) 구매한
사람이 많았다.

5. 비건 레더를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는 20대는 절반 가까이 되었다.(46%)

6. 일부 비건 레더 상품이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었다는 점을
모르는 20대는 79%였다.



최우리 기자

이 지점이 중요한 발견이 될 수 있겠네요.

->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건 레더'는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소재
를 사용한 가죽이라 생각하며,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했다.

● 설문조사 요약 링크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Ry4CBXT4XHJR4CF-gHcWf5K9Y9eFdxumUamNWctp0/edit?usp=sharing>



최우리 기자

직접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팩트 확인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설문
조사를 했는지 과정도 적어주면 더욱 좋습니다. 지인보다는 불특정 일반인(거리설문
조사?)가 더 신뢰도가 높겠죠. 그리고 장소나 시간대에 따라 설문조사 참여자들이 한정
지어질 수 있기에 이를 신경 써서 진행해야 합니다.

Q 어떻게 팩트체크를 하려고 하나요?

1. 논문 및 보고서 등 물적 검증 자료 탐색, 전문가 인터뷰를 활용해 팩트체크

- 비건 패션 관련 국내 논문 및 국제동물보호단체 등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비건 리더의 정의 검토
- 국제 환경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분석하여 합성섬유 의류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현황 검토



최우리 기자

중요한 근거로 삼을 팩트가 될 것 같습니다.

- 국제기구 보고서 및 해외 연구 논문 등을 분석하여 합성섬유 의류로 인한 미세플라스틱 배출 현황 검토



최우리 기자

이것 역시 중요한 팩트가 될 것 같네요. 결과값을 통해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국제환경단체에서 발간한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합성섬유 의류 매립으로 인한 환경 오염 현황 검토
- 국내 논문 및 해외 지속가능 패션 브랜드의 보고서 등을 분석하여 동물가죽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 현황 검토
- 국내 의류환경학과 교수, 국내 비건 패션 브랜드 대표, 국내 환경단체 대표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인터뷰



최우리 기자

의류전공, 비건패션브랜드 사업자, 환경단체 다양한 전문가 인터뷰를 시도한 점이 좋습니다.

위의 자료 및 인터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Q 팩트체크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료 또는 사람은?

1. 자료

- 국가환경교육센터 교육자료 참고(<https://www.keep.go.kr/portal/141?action=read&action-value=a93161864ec8daafb163ffc29aa8428a&page=1>)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특허청 보도자료 <인조가죽, 동물복지에 친환경을 더하다> 확인
- 한국무역협회 '필환경 ESG시대, 패션산업 친환경 트렌드와 시사점' 보고서 확인
- <비건 선인장 가죽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 개발연구> 논문 참고
- <유튜브 패션 콘텐츠에 나타나는 비거니즘> 논문 참고
- <비건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제품 만족도 연구> 논문 참고
- 패션엔, <도대체 비건이 뭐길래? 진짜보다 멋진 '비건 리더' 알쓸신잡>
- <브랜드 전략개발을 위한 비건(vegan) 패션·뷰티 상품 분석> 논문 참고
- <비동물성 가죽의 연구 동향과 제품 개발 가능성> 논문 참고
- 국제동물보호단체 PETA 홈페이지 참고
(<https://www.peta.org/living/personal-care-fashion/shop-vegan-clothes-not-urban-outfitters/>)
- <비건 패션디자인에 나타난 딜레마 유형> 논문 참고
- <지속 가능한 친환경 가죽소재에 관한 연구> 논문 참고
- 지구환경보고서 <플라스틱 아틀라스 아시아 2022> 보고서 확인
- 교보증권 <플라스틱 재활용 당위성과 기술현황> 보고서 확인
- 영국 패션 브랜드 <스텔라맥가트니> 홈페이지 참고

2. 사람

- 이수근 레이디볼룸 대표
- 정우한 한원물산 대표
-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
- 환경단체(그린피스, 재단법인 숲과나눔,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 박진영 낮아워스 대표
- 양윤아 비건타이거 대표
- 유현덕 특허심사기획국 과장
- 고애란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교수
- 배수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체크해보기

[팩트체크]

친환경적인 '비건 레더'? 실상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인조가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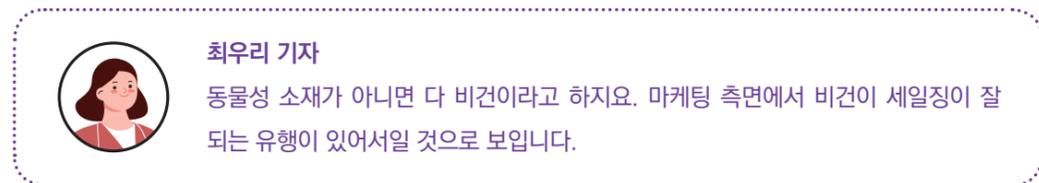
건강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늘고 '가치소비'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면서 식품 업계는 물론 패션업계에도 '비건' 열풍이 불고 있다. 패션 브랜드들은 다양한 비건 레더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모 패션 브랜드는 비건 레더 자켓 상품 홍보 페이지에서 "친환경적인 비건 레더 소재를 사용하여 제작했다"고 주장하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검증대상]

모 패션 브랜드의 "친환경적인 비건 레더 소재 사용했다"는 홍보 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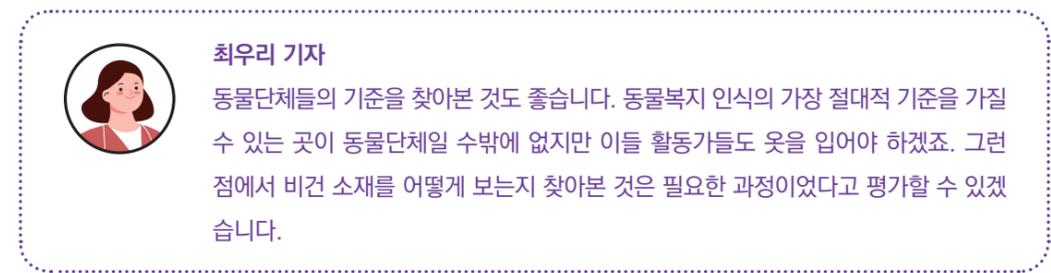
해당 제품의 소재는 'VEGAN LEATHER 100%'라고 표기돼 있다. 정확한 소재를 문의한 결과, "안감은 폴리에스터 100, 겹감은 폴리우레탄 100"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동물성 소재가 아닌 합성섬유 소재를 사용했다는 근거를 들어 '친환경적인 비건레더'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비건 레더는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소비자 86명을 대상으로 비건 레더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결과 '비건 레더는 약간 친환경적이다(38.3%)', '보통이다(37.2%)', '약간 친환경적이지 않다(13.9%)', '매우 친환경적이다(6.9%)', '매우 친환경적이지 않다(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건레더란?

현시점에서 비건 레더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 인조가죽'으로 통용되고 있다. 계명대 생활과학연구소에 게재된 '브랜드 전략 개발을 위한 비건(Vegan) 패션·뷰티 상품 분석' 논문에서는 "비건 패션은 모피, 가죽, 실크, 울, 깃털 등의 동물에서 얻는 어떠한 소재도 사용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친환경 소재 및 100% 재생물질을 사용하여 환경보호까지 고려한 소비의식을 확산시키는 패션"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동물보호단체 페타(PETA)는 의류에 사용되는 비건 소재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비건 소재는 유기농 면(면섬유로 직조된 데님, 플란넬, 캔버스 포함), 마(linen, hemp), 해조류섬유(SeaCell® Modal),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터(폴리에스터 플리스 포함), 비스코스 레이온, 모든 종류의 합성섬유, 인조 모피와 가죽, 합성 발열소재, 재활용된 플라스틱 섬유(rPET), 고어텍스, 텐셀 등이 해당된다."



즉 합성섬유를 사용하더라도 동물성 소재를 배제한다면 비건 소재 의류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모 패션 브랜드의 경우 동물성 소재를 배제하고 합성섬유를 사용한 비건 레더 제품을 내놓고 있다. 모 패션 브랜드뿐만 아니라 모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상위 5개의 비건 레더 제품 소재를 분석한 결과, 모두 폴리우레탄 혹은 폴리에스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스토어 상위 5위 비건레더 제품 소재 - 남성 기준		
브랜드	제품명	소재
리버풀	[비건레더] 필드 자켓 블랙	PU(폴리우레탄)
도트세이슨	오버핏 비건레더 싱글자켓	폴리우레탄 100, 폴리에스터 100
타이거시몬	[비건레더] 클루얼티프리 싱글 카라넥 레더 자켓	폴리우레탄 100
블리드	비건 레더 절개 자켓 브라운	폴리우레탄
브이투	VEGAN LEATHER OVERFIT JACKET_BLACK	안감 폴리에스터 100 겉감 폴리우레탄 100

그렇다면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 등의 합성섬유 소재가 ‘친환경적인 비건 레더 소재’라는 주장은 사실일까?



최우리 기자

합성섬유의 원료는 석탄입니다. 이 때문에 석탄에서 뽑아낸 섬유인 합성섬유 등 화학 물질들은 결국 플라스틱제품인 거죠.

‘친환경적인 비건 레더’는 ‘그린워싱’

의류업계에서 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비건 레더 제품은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터와 같은 플라스틱 소재의 합성섬유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같은 합성섬유 소재로 제작된 레더는 ‘생산-소비-폐기’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오염을 야기한다.

① 생산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폴리에스터와 같은 합성 섬유는 면과 같은 천연 재료보다 물과 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생산과정에서 kg당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세계자원연구소(WRI)는 “합성 섬유(폴리에스터)로 제작된 셔츠는 면 셔츠보다 탄소 발자국(온실가스 발생량)이 더

크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소는 2015년 기준 섬유용 폴리에스테르 생산과정에서 약 7060억kg의 온실가스가 발생했으며, 이는 185개의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좋은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② 소비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합성섬유는 사용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을 방출한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17년 해양유입 미세플라스틱의 35%가 미세섬유, 즉 옷에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이라고 밝혔다. 2016년 영국 폴리머스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폴리에스테르 의류 6kg을 세탁하자 49만6030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리 기자

아무래도 과학적 연구자료는 외국 논문을 활용할 일이 많습니다. 기자인 저는 논문을 인용한 기사보다는 논문을 직접 보려고 합니다. 주요 매체 기사들은 대부분 틀리지 않은 내용을 씬는 것 같습니다만, 시간되면 직접 논문을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합성섬유 소재는 세탁뿐만 아니라 입는 것만으로도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킨다. 이탈리아 국립연구회(IPCB-CNR)와 영국 폴리머스대학교 소속 고분자/복합 생체 재료연구소가 2020년 환경과학기술저널(Environmental Science and Technology)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합성섬유로 만든 옷을 세탁할 때보다 착용 시 미세플라스틱이 더 많이 배출된다. IPCB-CNR 연구원이자 본 연구 저자인 프란체스카 드 팔코 박사는 “합성섬유에서 배출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공해 오염이 실제보다 과소평가 됐다”고 첨언했다.

미세플라스틱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주요인으로 꼽힌다. 유엔 내 최고위급 환경회의인 유엔환경총회(UNEA)는 2014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 모색을 결의했다.

2014년에는 전 세계 10대 환경 문제 중 하나로 '미세플라스틱'을 지목하기도 했다.

③ 폐기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합성섬유로 제작된 가죽은 주로 매립 혹은 소각되는데, 이 폐기 과정에서 역시 환경이 오염된다. 하인리히 뵐 재단과 플라스틱 추방연대 아시아태평양지부가 공동 출간한 '플라스틱 아틀라스 아시아판 2022'에 따르면, 버려진 합성섬유 옷은 생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매립해도 썩지 않는다. 해당 도서는 "소각하지 않는 한 매립지에서 수백 년 동안 남아 있거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 생물에 해를 끼친다"고 설명했다.

교보증권의 '플라스틱 재활용 당위성과 기술현황' 보고서는 "플라스틱은 미생물이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에 묻어도 언제 썩는지 알 수 없으며, 완전히 부패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500년 정도라고 추정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식물성 한지 가죽 하운지(HAUNJI)를 개발한 한원물산의 정우한 대표는 "폴리우레탄이나 폴리에스터와 같은 화학섬유는 자연 상태에서 생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상에 계속 쓰레기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친환경적인 비건 레더 소재는 지속 가능하며 생분해가 가능한 소재에 부합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우리 기자

당사자들의 문제의식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팩트체크가 됩니다.

소각을 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플라스틱은 애초에 완전 연소가 어렵다. 플라스틱은 탄소(C)의 중합체로,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들어 있지 않다. 비건 레더의 대표적 소재인 폴리우레탄은 태우면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로 꼽히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합성섬유로부터 배출된 미세플라스틱은 토양에서 독성 화학 물질을 방출하고, 강, 바다, 지하수 등으로 흘러 들어가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힌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입자는 분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물리화학적

특성을 갖게 되며 그만큼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도 증가한다. 이처럼 폴리우레탄과 폴리에스터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한 비건 레더는 '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게다가 인조가죽은 동물가죽보다 수명이 짧아 금방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모피협회는 "인조 모피는 재생할 수 없는 자원에서 추출한 석유를 원료로 제품이 만들어지지만, 동물가죽은 수명이 20~30년 되는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만든다"고 했다. 수명이 짧은 비건 레더는 더 잦은 빈도로 생산-소비-폐기될 가능성이 높고,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역시 더 커질 수 있다.



최우리 기자

더 싸게 사고 더 빨리 버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가질 수 있겠네요. 가격을 비교했다면 어땠을까요?

비영리스타트업 다시입다연구소의 정주연 대표는 "비건 레더는 윤리적, 환경적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그린워싱' 용어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가리킨다.

이어 정 대표는 "패스트패션에서 만드는 대부분의 비건 레더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든다"며 "동물가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코 '친환경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모 패션 브랜드가 판매 중인 비건 레더 자켓 상품의 소재는 환경에 분명한 악영향을 끼치는 폴리우레탄과 폴리에스터이다. 그러므로 모 패션 브랜드가 주장하는 "친환경적인 비건 레더 소재를 사용했다"는 홍보문구는 사실이 아니다.

동물가죽의 대체재, 비건 레더

일각에서는 비건 레더가 동물성 소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자체로 가축 복지, 친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는 주장도 나온다.

동물가죽 생산 공정에 환경적인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비건 레더

다. 동물가죽을 생산하는 과정 뒤에는 공장식 축산업 기반으로 인한 가축분뇨 및 오염물질 생성, 액체 및 고체 폐기물 발생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가죽에 탄력과 강도를 부여하는 무두질 공정 과정에서 크롬 및 기타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인해 많은 폐기물이 발생한다. 한국생물공학회에 게재된 '비동물성 가죽의 연구 동향과 제품 개발 가능성' 논문에 따르면, 가죽 공정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들은 악취를 유발하고 잔여물, 고체 및 액체 폐기물이 되어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

가죽 제조 시 1,000kg의 동물 피부를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콜라겐 섬유를 제외한 지방 및 기타 물질은 최대 750kg이며, 고형폐기물로 폐기된다. 화학물질은 약 500kg이 사용되며, 최종 가죽은 200~250kg이 생산된다. 따라서 최종 생산되는 가죽보다 더 많은 양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게 된다.



최우리 기자

가죽과 화학물질 모두 제작 과정에서의 탄소배출과 폐기물을 남기지요. 그 차이를 수치로 보여준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출처를 밝혔다면 더욱 좋았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비건 레더를 친환경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동물가죽의 대안으로써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비건 패션의 선두주자인 영국 패션 브랜드 스틸라 맥카트니는 동물가죽 대신 합성섬유 소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환경 손익 계산서(EP&L)에 따르면, 브라질산 송아지 가죽은 재활용 폴리에스터보다 환경에 24배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국내 최초 비건 패션 브랜드 비건타이거의 양윤아 대표는 “동물성 모피의 환경 부담 지수는 폴리우레탄, 아크릴, 폴리에스터보다 3배 이상 높다”고 전했다. 또 다른 국내 비건 패션 브랜드 낮아워스의 박진영 대표는 “화학 처리된 동물가죽은 인조가죽과 마찬가지로 쉽게 생분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우리 기자

이런 지적도 중요한 발견일 수 있어 보입니다.

고애란 연세대 의류환경학과 교수는 “동물가죽은 동물의 사육 및 가죽 가공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며 “동물가죽보다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비건 레더가 덜 환경오염적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친환경적인 비건 레더”, 대체로 사실 아님

비건 레더에 대한 정의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고 ‘비건 레더는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패션 업계에서는 ‘비건 레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박진영 낮아워스 대표는 “‘비건 레더’라는 단어는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말일뿐, 소재 자체는 아니다”며 “‘Vegan leather shirt’가 제품의 이름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옷의 상세 소재 표기는 ‘polyurethane’이 되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도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더 좋은 수식어들을 찾는 기업의 생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이 더 까다롭게 알아보고 그린워싱 용어에 속지 않는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모 패션 브랜드가 합성섬유 소재를 사용하며 ‘비건 레더’라고 홍보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합성섬유 소재가 여러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비건 레더 소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만 비건 레더가 동물성 모피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물가죽 보다는 덜 환경오염적이라는 주장도 의미가 있다. 비건 레더는 동물가죽보다 환경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지만 막연히 친환경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에 모 패션 브랜드의 “친환경적인 비건 레더 소재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최우리 기자

친환경과 비건은 같은 이미지로 느껴지지만, 엄밀히 따지면 개념이 서로 다릅니다. 친환경은 정말 환경에 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건은 동물권 차원에서 동물의 목숨을 뺀 윤리적 문제의 접근입니다. 이 때문에 서로 같은 의미가 아닌데, 광고분야나 마케팅차원에서 이 이미지를 같이 묶어 활용하는 측면이 있지요.

근거자료

- 근거자료 1 : 최미화·여은아, 브랜드 전략개발을 위한 비건(Vegan) 패션·뷰티 상품 분석(2013), 과학논집
- 근거자료 2 : 배수정, 비건 패션의 범주와 실천 방안 모색(2020), 패션비즈니스
- 근거자료 3 :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s Institute)의 보고서 (www.wri.org/insights/apparel-industrys-environmental-impact-6-graphics)
- 근거자료 4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보고서 (portals.iucn.org/library/sites/library/files/documents/2017-002-En.pdf)
- 근거자료 5 : Francesca De Falco, Microfiber Release to Water, Via Laundering, and to Air, via Everyday Use: A Comparison between Polyester Clothing with Differing Textile Parameters(2020), Environ. Sci. Technol. (pubs.acs.org/doi/full/10.1021/acs.est.9b06892)
- 근거자료 6 : 유엔환경계획(UNEP)의 자료 www.unep.org/news-and-stories/story/plastic-planet-how-tiny-plastic-particles-are-polluting-our-soil
- 근거자료 7 : 하인리히 뵐 재단·플라스틱 추방연대 아시아태평양지부, <플라스틱 아틀라스 아시아판 2022>(2022)
- 근거자료 8 : 교보증권, 플라스틱 재활용 당위성과 기술 현황, <2022 교보지식포럼> (www.iprovest.com/weblogic/RSReportServlet?scr_id=40&mode=detail&menuCode=9&pageNum=2&sno=2047503&rno=19)
- 근거자료 9 : 세계일보 <국제모피협회가 밝힌 모피에 관한 오해와 진실> 기사
- 근거자료 10 : 허성민 · 신현재, 비동물성 가죽의 연구 동향과 제품 개발 가능(2020), KSBB Journal
- 근거자료 11 : 뉴스핍권 <합성섬유 의류 '착용'만으로 미세플라스틱 엄청나> 기사
- 근거자료 12 : 스텔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공식 홈페이지 www.stellamccartney.com/kr/ko/sustainability/measuring-our-impact.html)
- 근거자료 13 : 정우한 (주)한원물산 대표 인터뷰
- 근거자료 14 :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 인터뷰
- 근거자료 15 : 양윤아 비건타이거 대표 인터뷰
- 근거자료 16 : 박진영 낮아워스 대표 인터뷰
- 근거자료 17 : 고애란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교수 인터뷰



결론 작성하기



비건 레더에 대한 정의와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고 ‘비건 레더는 친환경적’이라고 인식하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패션 업계에서는 ‘비건 레더’ 용어를 사용하는 데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 박진영 낮아워스 대표는 “‘비건 레더’라는 단어는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말일뿐, 소재 자체는 아니다”며 “‘Vegan leather shirt’가 제품의 이름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옷의 상세 소재 표기는 ‘polyurethane’이 되어야 한다”고 첨언했다.



최우리 기자

비건이라는 개념의 남용, 오용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동물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뿐 화학물질을 사용했고 이 경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따로 구분해야 하겠지요.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도 “많은 이윤을 내기 위해 더 좋은 수식어들을 찾는 기업의 생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소비자들이 더 까다롭게 알아보고 그린워싱 용어에 속지 않는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모 패션 브랜드가 합성섬유 소재를 사용하며 ‘비건 레더’라고 홍보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합성섬유 소재가 여러 환경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비건 레더 소재”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비건 레더는 동물가죽보다 환경적으로 나은 부분이 있지만 막연히 친환경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에 모 패션 브랜드의 “친환경적인 비건 레더 소재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

▶ 미디어 콘텐츠

알고 입자, 비건 레더

● 콘텐츠 소개

팩트체크 리포트 내용을 포스터, 리플렛, 카드뉴스, 심리테스트 등으로 제작해 홍보했다. 타겟을 MZ세대로 설정한 만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SNS(인스타그램)를 적극 활용했고, 링크트리에서 모든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MZ세대의 취향을 반영해 재치있고 친근한 분위기의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했다.

https://instagram.com/kmu__factchecker?igshid=Y2ZmNzg0YzQ=

(링크트리 링크 : https://linktr.ee/veganleather_factcheck)

1. 포스터

포스터는 흥행한 영화 ‘범죄도시2’ 콘셉트를 패러디했다. ‘진실의 방’이라는 단어를 통



해 팩트체크의 직관적인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했고 ‘범죄도시2’의 유행어 “형은 다 알 수가 있는데~?”를 인용했다. 포스터 하단에는 콘텐츠를 모아둔 링크트리로 연결되는 QR 코드를 삽입해 유입을 이끌었다. 포스터는 서울대, 국민대, 명지대에 부착해 대학생들에게 홍보했고, 자체 개설한 미쓰리광일 인스타그램 계정도 업로드했다.

2. 2단 리플렛

리플렛은 포스터보다 더 자세한 내용과 근거자료를 담고자 했다. 비건 레더의 정의와 문제점, 전문가 인터뷰 등 리포트에서 다뤘던 전문적인 내용을 요약해 본문을 구성했다. 마지막 장에는 팩트체크의 전반적인 과정을 담고 미쓰리광일팀을 소개했으며 링크 트리도 연결되는 QR코드를 넣었다.

리플렛 역시 미쓰리광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했으며, 더 원활한 홍보를 위해 환경 뉴스 플랫폼 <플래닛타임즈>에 리포트와 리플렛을 함께 기고했다. 9월 16일자 플래닛타임즈 웹사이트에 게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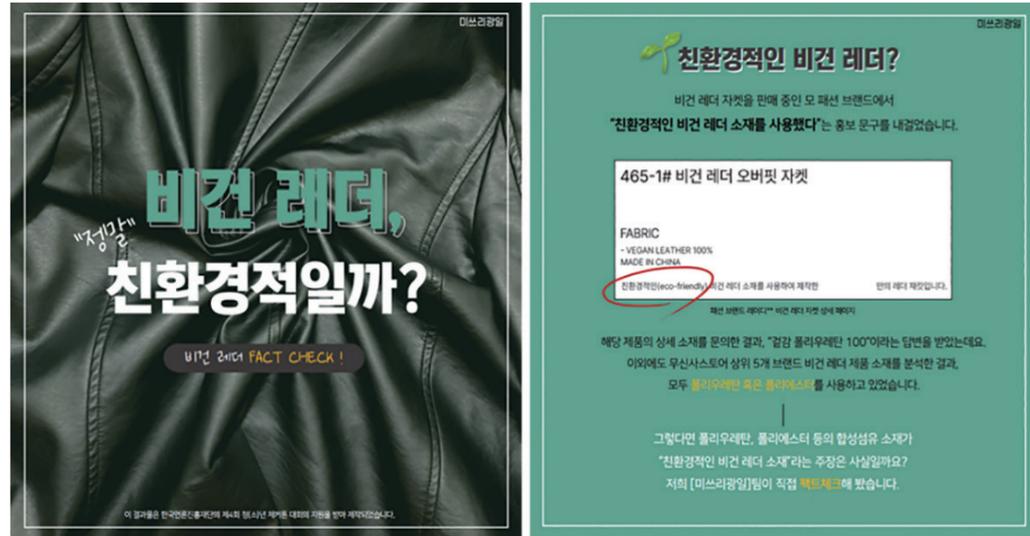
(플래닛타임즈 링크 : <http://www.planet-times.com/2452>)



3. 카드뉴스

카드뉴스는 스토리텔링에 집중했다. 팩트체크 리포트의 전반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하고자 했다. 구어체와 질의응답 형식을 활용했다.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리플렛과 톤앤 매너를 맞췄다. 체커톤 심화교육에서 “카드뉴스에 팀 사진을

넣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마지막 장에는 미쓰리광일팀의 프로필 사진을 삽입했다. 1:1 사이즈로 제작된 카드뉴스를 홍보하기 좋은 최적의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해 미쓰리광일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해 홍보했다.



4. 심리테스트

MZ세대 사이에서 MBTI 같은 성격 유형 테스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팩트체크 내용과 관련된 심리테스트를 제작해 쉽고 재미있게 콘텐츠를 홍보하고자 했다. 심리테스트는 [Waveon] 플랫폼을 구독하여 제작했다. 쇼핑 상황을 가정해 자연스럽게 성격 유형 질문지를 만들었고, 결과에는 참여자의 성격 유형과 비슷한 특징을 가진 비건 레더 소재를 추천하도록 했다. 선인장, 와인, 파인애플, 한지, 버섯 가죽을 선정해 각각의 특징과 성격 유형을 분석해 매칭 시켰다. 마지막 장에는 링크트리로 연결되는 버튼도 활성화시켰다. 또한 심리테스트 결과를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는 이벤트를 열어 더 많은 MZ세대가 유입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 9월 19일 기준 심리테스트 조회수는 3,289회를 기록했다.



▲ 심리테스트하러가기

활동사진





참여소감



고경명 >>>

환경 관련된 팩트체크에 그치는 것에서 그쳤으면 매우 아쉬웠을 거 같다. 직접 팩트체크한 결과에 대해 마케팅 기획안을 구성하고 집행까지 직접 진행하면서 소비자 및 독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 마케터를 꿈꾸는 사람에게 가장 직무와 적합한 경험이었던 것 같다. 매우 힘들고 기간이 오래 걸린 공모전이었지만 힘든 만큼 팀원들과도 더욱 가까워지게 된 것 같아 기쁘다.

김성곤 >>>

우선 굉장히 뿌듯하다. 주제 선정부터 미디어 콘텐츠 홍보까지 팩트체크의 모든 과정을 경험했다. 문제를 캐치하는 포착능력과 그것을 이야기하는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값진 경험이었다. 비록 인터뷰이 컨택과 미디어 콘텐츠 실현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팀원들과 함께 헤쳐나간 것에 보람을 느낀다. 이번 체커톤 대회 이후에도 꾸준히 팩트체크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

김수호 >>>

예선 과제로 팩트체크 리포트를 작성할 땐 팩트체크 과정을 배우면서 느끼는 재미가 컸다면, 본선에서는 우리가 팩트체크한 내용을 다른 콘텐츠로 재탄생시키는 데 큰 즐거움을 느꼈다. 특히 우리 팀은 포스터, 카드뉴스, 리플렛, 심리테스트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람도, 배움도 배로 컸던 것 같다. 심리테스트 조회수가 3,000회를 넘는 등 또래 MZ세대들의 참여 반응이 좋아서 더 뿌듯했다.

최수현 >>>

리포트 기획안을 넘어 실제 미디어 기획안을 실행하며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직접 기획한 콘텐츠를 실물로 제작하고 MZ세대를 겨냥한 테스트도 만드는 등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팩트체크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전문가 피드백



최우리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건 리더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더욱 더 집중을 하게 합니다. 비건제품인 리더가 있을 수 있는지 의심할 만 하지요. 더욱이 '친환경' 수식어가 붙으면 더욱 힘을 갖게 됩니다. 친환경 실천이 유행인데, 그린워싱이 아닌지 의심을 갖고 팩트체크할 주제로 선정한 것은 마땅합니다.

팩트체크 과정도 정보나 자료 수집, 참고 기사 확인,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 특히 업계에서 직접 이 일을 하며 고민하는 의류업계 인사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외국 논문들을 참고해 합성섬유와 동물 가죽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비교하면서 주요 판단 근거를 잘 확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80여 명의 시민들 설문 조사를 통해 20대 소비자들이 평소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지 확인한 것도 좋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설문조사는 조사 기간, 장소, 조사방법 등을 소개해야 객관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끝으로 MZ 세대들의 높은 친환경 인식 속에 잘못 알고 있는 사실들을 바로 잡기 위한 포스터나 카드 제작 과정을 통해 직접 소통하려는 시도도 좋아 보입니다. 심리게임은... 저도 기대가 되는군요. 어려운 것도 같은데... 다만 선호하는 옷감 등이 무엇인지 알 수도 있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팩트체크할 일이 있다면, 좀 더 복잡한(?) 주제의 환경 문제를 따져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정재철 기자

팩트체크 한 내용과 결론으로 미뤄볼 때 비건레더는 일종의 '그린워싱'일 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에 관련 내용을 문의해보고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또는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